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How, at a party where lots of people are talking, do we select which of many conversations to give our attention to, and which to ignore? To help answer these questions, Donald Broadbent turned his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filter in his model.

- (A)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information is stored in short-term memory, it is only after filtering that it is processed for meaning and actually understood.
- (B) Precisely what information does it filter out, and what does it allow through? He found that the selection is made not on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but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ny message, such as clarity or tone of voice.
- (C) This finding had important implications when applied to air traffic control, for example, where decisions could be made on possibly irrelevant or inaccurate information, rather than being prioritized according to meaning and importance.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VIRTUAL (2)

3점 문항 햇설

정답: 12543214523

제시문

How, at a party where lots of people are talking, do we select which of many conversations to give our attention to, and which to ignore? To help answer these questions, Donald Broadbent turned his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filter in his model.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파티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들 중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줘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어떻게 고르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Donald Broadbent는 자신의 모형에서 그 필터의 속성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문제를 제시하고, 이후 지문의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는 **순서문제의 전형적인 도입부**이다.

*도입부의 질문은 지문이 답해야 할 숙제이다. 지문 전체를 독해하는 동안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대화 중에 무엇을 고르느냐가 결국 필터의 속성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B) Precisely what information does it filter out, and what does it allow through? He found that the selection is made not on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but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ny message, such as clarity or tone of voice.

그것은(그 필터) 정확히 어떤 정보를 걸러내고 무엇을 허용하는가? 그는 그 선택이 정보의 내용물이 아니라 명확성이나 목소리의 톤과 같은 메시지의 물리적 특성들에 근거하여 내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A)는 This suggests that ~ 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발견의 결과, 의의** 등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다. 제시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부를만한 내용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C) 역시 This finding이라고 했는데, 아직 제시문에서는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하지 않았다.

*(B)는 제시문의 방향제시 즉, 'the filter'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평가원 순서 문제에서 제시문 이후에 첫 번째 순서를 잡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내용의 근접성'이다. 즉, 제시문에서 본론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징검다리는 아직 두드러진 논리전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를 잡을 때는 제시문과 내용상 가장 근접한 출발 포인트를 가진 선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

*도입부에 이어 'the filter'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 속성'으로 정보를 거른다는 것이다.

(A)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information is stored in short-term memory, it is only after filtering that it is processed for meaning and actually understood.

이것은 비록 정보가 단기 기억에 저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를 위해 처리되고 실제로 이해되는 것은 오직 여과작용 이후라는 것을 암시한다.

(C) This finding had important implications when applied to air traffic control, for example, where decisions could be made on possibly irrelevant or inaccurate information, rather than being prioritized according to meaning and importance.

이 발견은, 예를 들자면,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도 있는 항공 통제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A) → (C) 의 결정.

*(A)는 이론적 진술, (C)는 예시로 이뤄져 있다. 글의 구성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General Statements(G)라 하고, 예시나 구체화로 이뤄져 있는 진술을 Specific Statements(S)라고 부르며, 하나의 단락의 구성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 지문에서는 시작을 G로 했는데, 단순히 글의 구성 이론으로만 따지자면, G-G-S 나, G-S-G 모두 가능한 형태이다. 즉, 예시이니 마지막에 와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저한 독해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 당연히, **예시는 그 범위가 G에서 설명한 부분까지 만을 포괄해야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도의 순서문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념이다!

*그럼, 이제 (A)와 (C)의 순서를 구별함에 있어, 위의 개념을 사용해보자. (C)의 예시에서 항공 통제의 경우 '의미와 중요성으로 우선순위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결정을 내린다'라는 말을 잘 살펴보자. (C)가 (B)다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B)에서 언급한 부분까지만을 언급해야 한다. 그런데, (B)에서는 'filtering'이 'physical characteristics'에 의존한다고만 했지, '그러므로 의미와 중요성은 이것에 의해 나중 순위로 밀려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A)를 보면, (B)에서 나온 filtering의 물리적 속성에 의거한 '신 filtering 이후 의미처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둘 중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A)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C)의 예시는 (A)가 등장한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풀이 총평

순서 문제의 풀이는 결국 2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과 두 번째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 1번을 결정하는 것은 제시문과의 내용 근접성, 2번을 결정하는 것은 지문 안에서의 논리적 서열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평가원의 순서문제 풀이의 경향이다. 이 문제는 특히 두 번째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독해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였다. 문제를 맞혔든 아니든 이 부분에서 얻어가야 할 부분이 많았던 문제였다.